

무엇을 일깨우고 배울 것인가



다양한 이름 도우미들

목차

[illegible]

여성학교, 무엇을 일깨우고 배울 것인가

여성과 일

현대 사회의 성

페미니즘 문화

이시대 '진보적 수탈'의 비명 소리

5151910 140 [REDACTED] 1419 1420

『여성학교』

무엇을 일깨우고 배울 것인가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에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총여에서 는 왜 맨날 페미니즘 얘기만 하나요? 영화도, 선전물도 온통 페미니즘 투성이어서 이젠 지겹다는 생각조차 들어요." 심지어는 총여 내부의 관계자들조차도 "이젠 성희롱이니 여성영화니 하는 말들에 식상한 느낌이 든다. 스스로가 관성화되어 버린 느낌이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인지 통 모르겠어요. 이젠 지겨워 죽겠으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라는 말로 해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의 문화 현상이요,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일 뿐인 페미니즘이라는 괴물에게 단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괴물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채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그 속에 젖어드는 한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우리들 모두의 혼란의 출발지점입니다.

무지가 혼돈을 낳고 그 혼돈은 곧 포기로 이어집니다.

고민하지 않는 지성은 타성화된 껍데기일 뿐입니다.

혼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린 지성을 위해 『여성학교』는 존재합니다.

여성학교는 말그대로 교육의 장입니다. 교육이란 교육을 시키는 쪽과 교육받는 쪽이 따로 있는 일방통행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일깨우고 배우는 상호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학우들이 함께 모여 영상 자료를 보고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관성화된

총여학생회, 그리고 타성화된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은,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어떤 다른 신분의 인간, 타자(the Other)라고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처한 상황인 것이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 1949

여성과 일

들여가기

사유재산의 발생과 함께 여성노동은 공적영역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이라는 사적영역으로 돌려졌다. 여성과 남성,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소외당하는 존재였으며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사회경제적, 성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사적 노동에 파묻히면서 여성이 억압당하였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자신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관계 맺고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희생이 강제되며 여성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했고 그런 권리들을 조금씩 찾아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면서 성적으로도 종속된다. 이러한 지배적인 남성에게서 독립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서기위하여 자기실현의 장으로써 여성에게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의 일은 경제활동에의 참여, 정치활동에의 참여, 기타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비공식적 영역에의 참여로 넓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일에 대한 열망은 그러나 아직도 심각한 남녀불평등의 문제가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노정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장벽들

을 우리는 살펴볼것이다. 그 속에서 여성에게 지워진 무게를 느끼며 자기통로로서의 사회적 참여, 일이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가

여성이 일을 갖는데 있어서 여성의 열세를 조장하고 평등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여성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여성은 까다롭다든지, 키워서 쓸만하면 결혼하고 직장을 버린다는 등의 이야기로 인적 자본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여성은 사회화의 차이, 가사와 직업의 이중 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일에 대한 고용기회에 대한 제도적인 여성차별과 이를 영속화하려는 문화적, 제도적 장치들에게 보다 책임이 있다는 - 사회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않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 교육에 합당한 직종과 임금 그리고 기회에서 밀리고 있다. 따라서 후자가 여성의 일에 대한 열세를 적절하게 설명해준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이라는 부분에서 구조적 저해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저해요인으로 나누

어 이야기하겠다.

구조적 저해요인은 기회구조상의 제약의 문제, 남성우위의 통제구조의 문제, 가족제도의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참여가 양적으로 남성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며 그 대안으로 여성교육의 확대와 기회구조의 확대를 요구한다. 그러나 양적 증가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성은 여성직종에 한정되며 임금과 승진기회에서 밀리며 가사와 직업의 이중 부담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일을 갖을 수 있으려면 남성지배적 통제구조가 가져오는 성격리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남성을 공적인 영역으로 여성을 사적인 영역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핵가족의 확산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오랜 전통 속에 이어져 내려온 남성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 적용에 아직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경제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녀출산이라는 재생산의 활동에서도 남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의 양해없이 생산이나 재생산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가부장제는 산업화 이후 생산이 가정에서 공장으로 이동하여 직장가정이 분리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분리가 성별 분리와 결합하여 직장은 남성의 영역으로 고정된 것과도 관련된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여자가 직장의 영역에 진출할 수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가사노동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사회적 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

-목차-

들여가기

무엇이 여성의 일을 가로막는가

자본주의사회와 여성의 노동

여성의 일을 지키기 위하여

나모기

역할의 부담을 지니게 되었고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바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저해요인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평등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성과 관련된 전통적 규범, 성역할이 사회 속에 잔재하며, 여전히 사회적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능력에 성별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성역할에 대한 규범적 이데올로기이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여성의 무능력론은 여성을 열등화시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여성이 무능력하다는 것은 생물학적 성적 차이때문이 아니라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우위의 사회, 가부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고정되고 여성은 가사노동에 적합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하고 모성애를 강요하는 여성에게 틀을 씌우고 사적영역에 묶어버리는 성역할이데올로기는 남성의 우월권과 경제적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성적 권력체계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소산임을 십사리 알 수 있다. 여성열등과 성역할의 이데올로기는 가정에서의 사회화, 교육, 대중매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다. 이러한 틀을 깨뜨리는 의미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와 여성의 노동

여성의 사회참여는 더욱 증가하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미 전체 노동인구의 30% 이상이 여성이며, 고용평등법 등의 제도적 측면이 개선된다면 더욱 많은 여성인구가 노동에 참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전문직 여성노동자층이든 생산직 여성노동자층이든 간에 우리 여성노동자층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성별에 의해 갖게 되는 공통점인 바 그 특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인 견해로 보기에겐 반론의 여지도 있음을 알지만 핵심의 부각을 위해 극단적인 논거를 제시하겠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노동의 특징

(1) 고용기회의 불평등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성별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은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땀땀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성별에 의해서. 그러므로 해서 여성노동력이 유입되는 부문이 특정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90년도까지 여성노동력의 취업구조를 보면 3차산업, 서비스산업, 유흥산업 등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지며 대기업등으로의 유입도 늘기는 하나 3차산업에 비하면 증가율이 높지 않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장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재수에 삼수, 사수

까지 하는 여성대졸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들이 다른 남성들보다 능력이 적어서일까? 아니면 게을러서일까? 이것이 아니라면 성별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별이 가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종은 남녀차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사법고시나 CPA(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한 여성들도 똑같이 겪는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도 남성들과 같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2) 경제적 차별

경제적 차별은 저임금과 차별임금이다. 고용기회의 불평등을 깨고 당당하게 기회를 따낸 여성에게 더크게 다가오는 것은 임금차별이다. 이는 고용기회의 불평등 못지 않게 심각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이 어렵게 얻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취업 여성들은 남성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여성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즉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한 임금으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 경제적 차별의 경우는 전문직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3) 임금노동에 기사노동

- 이종노동의 부담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부담은 직접적

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여성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 참여하면서도 당연하게 가사노동까지 수행할 것을, 그것도 잘 할 것을(이것을 소위 Super Women Complex라고 한다.) 요구받고 있다. 거기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은 종종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사회일반의 문제화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어이없게도 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사회참여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가져가지 보다는 이종부담이라는 모순으로 빠지게 한다. 최근들어 가사노동을 남녀가 공동으로 일구어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여성노동일반이 가지는 문제이다.

(4) 잘못된 성문화로 부터

당하는 대우

얼마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 사건을 기폭제로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해 다시 짚어볼 수 있었다. 잘못된 성문화로 인한 부당한 대우는 비단 여성노동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남성과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여성들에게 넘기 힘든 산으로 다가오는 것이기에 여성노동일반이 처해 있는 문제로 꼽고자 한다. 기회의 불평등에서 차별의 불평등, 동시에 문화에서 당하는 불평등은 여성노동자를 사회역할의 한 담당자로 서게 하기보다는 더욱 왜소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여성의 일을 위한 대안

여성의 사회적 노동은 도구적인 것일

뿐이다. 도구적 요구에 급급한 사회적 노동으로의 포섭은 일에 대한 남녀의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노동을 한정시키며 저급화시키고 있다. 여성노동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열림과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한 저해요인에서부터 대안을 살펴본다.

우선 구조적인 접근을 해보면 여성에게 있어서의 교육과 고용기회의 평등 보장과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의 극복, 가족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장가 가정의 분리에서 오는 여성의 이중 역할의 극복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활동이 사회참여의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분담으로 타아소나 법적 측면으로 모성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전반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극복으로 나타나야 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성문화등의 고정틀을 깨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여성의 상과 위치, 고정된 성성이 아닌 양성성의 인정을 통한 폭넓은 이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는 어느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평등세상을 위한 하나하나의 걸음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서야 한다.

나오기

여성에게 있어 일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당당한 인간으로 서기위한 통로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남성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에게 일이란 사회경험을 위한 하나의 꺼리가 아니라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에 대한 사회적 벽이 너무나 두껍고 단단하다는 것뿐이다. 새로운 시각, 열린 시야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성과 고정관념과 틀을 부수는 작업은 인간의 인간됨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여성은 가치에 따라 사회로 가정으로 옮겨져 가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성, 의의와 서

그러나, 여성의 가치들이 다른 성에 의해 만들어져온 가치들과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버지니아 울프, 1929

현대 사회의 성

1.

'성(SEXUALITY)',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주제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수많은 담론들이 그것과 결부되어 떠돌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자. 하나,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며 인간의 자연적 본능으로 생리적 충동으로 성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을 바라보며 인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구조적인 관계에서 성을 파악한다.

인간의 성이 동물계에서 다른 동물들과 같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생물학적 성을 인간 서로간의 관계, 문화적 틀 속에서 바라보므로 SEXUALITY의 의미대로 생물학적인 'SEX'와 사회적인 'GENDER'의 결합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성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와 그 원인을 찾는 기본이 될 것이며,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구조, 문화적 관계의 복합체로서 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성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들을 살펴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성상품화 부분을 다루며 현대사회에서 성의 왜곡과 성폭력에 대해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생각해볼 것이다.

2.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예속

가부장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했던 단어이며, 그만큼 무감각해진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며, 사회체제로 형성되어 가족에서의 가부장과 회사, 학교, 국가등 전 사회적으로 펼쳐져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발생을 보려면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시시대에서부터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발생과 변화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가부장제의 발전에 대해서 다루지않겠다. 다만 그안에서 생성된 성문화의 왜곡이라는 측면만을 다루고자 한다.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지적했던대로 가부장제의 일부일치 결혼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성적 종속을 가지고 왔다. 사유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그러한 사유재산의 소유권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그것을 토대로하여 부계중심의 혈연제도와 부권을 절대화시킨 것이다. 가부장의 발생을 통한 남성중심의 사회, 남성에게 권리가 돌아가고 여성에게 종속과 의무가 지워

지는 것으로 하나의 정형된 성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가부장적 성문화가 가지는 몇가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가부장적 이중적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남성이 자신의 사유재산의 천지상속하고자 함으로써 여성의 성은 생식의 기능으로써 최대의 기능하게 되었고, 혈연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여성의 지상 최대의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순결은 재산만큼 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그로써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속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부장적 이중 성윤리는 여성에게는 이러한 종속을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에 있어 열림을 제공하게 되었다. 매춘과 일부일치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서있던 역사를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남성에 대한 여성의 억압을 규정하는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무한한 지배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므로 여성은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소유와 통제권리를 남성에게 내주게 된다. 이로써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권력의 불균형을 만들어 내며 남녀간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성교류는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불균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리를 만들어 내며 왜곡된 성문화 성의식을 생산해 낸다. 이를테면 남성은 여성보다 성욕이 강하다던가, 여성은 성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다는 것 등이 있다. 여성성은 수동적, 소극적인 것으로 남성성은 능동적, 적극적인 것으로 놓으므로 해서 성역할을 분리하며 그것은 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정형화된 성유형을 창출해내고 그것만이 정상적이라고 부

르짓는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규정된 성역할과 성적 정체성은 성규범을 만들어내고 이중성을 강화한다. 남성의 성적 주도권의 소유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일어난다. 성차별적 성규제와 성규범, 그리고 성의 신화를 창출하는 가부장제의 이러한 이중구조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의 부조화를 만들내고 인간의 인간됨을 부정한다. 바로 이속에서 하나의 틀이 형성되고 또 하나의 지배를 형성하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는 가족의 붕괴라는 것에서부터 나오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가족만이 아닌 전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새로운 생활양식들의 대두와 인정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사고 속에 잔재하는 동시에 지배문화로 군림하는 가부장제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판단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 성상품화

현대 성문화의 특성을 성상품화와 아노미적 현상으로 이야기 한다. 성상품화는 인간의 노동에서 사회생활 전반을 상품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특성에서부터 나온다. 이윤의 증대라는 목적하에 성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성은 스트레스 해소부터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만족시키기위한 다기능적인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성은 인간적 속성을 상실하고 물상화되고 객체화된다. 이것을 소비시

키기위해서는 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고 성욕을 부추켜야 한다. 이렇듯 성욕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이러한 문화에 예속되고 성상품화는 가부장제와 맞물려 여성의 성적대상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본주의는 성의 상품화이외에도 성에 대한 자유를 제공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성혁명과 개방은 여성에게 생식적인 성과 쾌락적인 성의 구분의 가능하게 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성의 자유화는 전통적 성의 이중구조와 함께 새로운 예속을 창출한다. 물론 좀더 성에 대해 열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성의 자유화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적용된다. 심리적으로는 조용한 아내를 원하면서도 성적 자극을 바라며 밖으로 나가는 남성들과 성적 욕망을 느끼며 정숙한 여성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여성들에게 성의 자유화가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과 성을 분리시키고 매춘을 고급화시키고 싶어하는 이러한 문화는 향락 문화를 향하며 그 안에서 여성의 자유는 이중적인 성규범에 의해 통제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화는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시킨다. 성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차별과 부조화는 성에 의한 불평등의 사회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성의 자유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은 성의 억압과 자유 그 어느 쪽에서도 성의 질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남성도 예외일 수 없다.

성상품화와 자유화가 내뿜어내는 향락 문화는 성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예외없이 쏟아지는 성의 자극과 성욕의 부추김은 누구에게나 손쉬운 배출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화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며 성일탈과 성범죄를 조장한다. 상업적 성의 유흥을 즐기고 성산업을 자극하는 문화를 배출해 내므로 해서 가부장제와 함께 성의 왜곡을 가져온다.

4. 성폭력

작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우회정치 승소판결 등으로 성폭력, 작게는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올바른 성문화를 이루어내는 힘이 되어야 하지 결코 성의 자유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왜곡된 상을 만들어내는 안될 것이다. 성은 흥미꺼리이며 표피적 자극이 아닌 하나의 인간내재적 속성이며 사회 속에서 결정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해보자.

법적 개념은 성폭력의 행위들을 각각 분리된 것으로 본다. 이는 성폭력의 유형 안에는 강간, 강제추행,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판매, 음란행위, 성적희롱, 아내구타, 아동학대, 성기노출 등 서로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성범죄가 포함되는 데 이것은 각각 서로 다르고 분리된 행위로 개념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각의 성폭력 형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지는 것뿐이다. 이안에서는 여성은 실질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분리적 관점이 아닌 연속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뿐이 아닌 폭넓은 범위에서 성문화에 대한 날

카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여성학적 개념 규정은 여성의 경험과, 성과 성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많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성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강요 및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서로 통하는 일련의 연속적 요소나 사건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중시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분된 분석적 범주가 없다. 이렇듯 성을 매개로 하여 폭력을 통한 공격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이 무시되었을 경우 성폭력이 구성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운간, 부부강간, 강도강간 등 인간에게 가해자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바라보면 된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 성폭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을 만드는 원인은 미비한 사회제도적 장치 - 피해자 지원제도, 법적구제 등 -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가부장적 성의 이중구조와 자본주의적 성문화가 가져온 남녀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의 순결관이 지배적이며,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회적 모든 불평등은 원인이 된다. 그것은 가부장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수직적 관계에서의 불평등이 그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남성 위주로 흐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들 수 있다. 즉 성은 본능인데 남성은 성충동이 강하고 참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결국 성폭력은 성충동에 의한 성행위로 보고 여성의 부주의나 유발을 탓하는 것이다.

둘째, 이중적 성규범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차원이 아닌 여성의 정조, 보호 차원에서의 성폭력 규제와 인식은 숨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 여성에게는 순결을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조장된다.

셋째, 성을 상품화하고 성의식을 왜곡하는 문화이다. 이윤획득이라는 목표아래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를 제공하고 여성을 상품화시키면서 성을 왜곡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제도적 장치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와 구체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갖는 법적 장치의 부족은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갖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원인으로부터 대안을 마련해 보자.

첫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려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

기 때문이다. 잘못된 통념의 수용은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신고된 후에도 효과적인 제재가 행해지지 못하게하며, 피해자가 자기상처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사회의 현재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는 성폭력은 제대로 억제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 - 성적 자기결정권 -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향락산업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올바른 남녀평등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를 이루려지도 않게 저지르는 풍조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남녀불평등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란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여성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게 한다. 권력을 가진 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어떤 여성, 남성이라는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구조를 말해준다.

셋째, 법적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며 지금 있는 성폭력특별법도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은 성폭력을 통제하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성폭력은 타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며 처벌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우희정씨 사건은 이러한 필요성을 말해주는 데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고용주에 대한 처벌조치가 없었던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4월 1일 발효된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도 아직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두고 있는 점, 친고죄의 존속에 대한 점,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라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비동의간음죄'가 신설되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네째,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처럼 성교육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성과 접할 수 있는 기회란 오로지 향락문화와 젖어든 대중매체들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통로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새로운 세대가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따른 대처방안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개인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그다지 큰 효력은 없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자신의 보호는 자기권리를 찾아가는 기본적인 대응이 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집안에 있어야 한다든지 정숙한 여자는 성폭력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하는 그런 왜곡된 인식에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확실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5.

대략적으로 위에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폭력은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말해주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다. 운나쁘거나 행실이 않좋은 여성이

성충동이 강한 남성에게 '당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식을 바꿔나가며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feminism의 전통적 구호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것들을 깨닫은 공통성들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곡된 성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이들과 그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들의 오랜 싸움일 뿐이다.

페미니즘 문화

1. 왜, 지금 페미니즘인가?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시대정신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말경이다. 1977년 여성학이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처음 등장한 이래 페미니즘은 대학교육, 여성단체,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지금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페미니즘이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원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제 몫을 담당한 페미니스트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회 문화 현상의 흐름과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병행하여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주로 이데올로기 투쟁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계급과 노동현장의 문제에 접목된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이데올로기 적 혼란은 상대적으로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환경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제 소리 높여 외쳐도 그 누구의 들도 맞지 않을 수 있는 이념은 페미니즘과 환경주의 뿐'이라는 말이 진보 문화계 일각에서 당당히 말하여 질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페미니즘도 계급보다는 여성문화의 창조라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사적 영역인 성, 결혼, 가사분담의 문제를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매스컴의 역할로서, 각 방송이며 신문, 잡지 등에서 여성문제에 관심은 갖게 되면서 페미니즘은 급속도로 대중 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매스컴이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의 배경 속에서 현실적인 힘을 얻은 페미니즘은 그 대중화의 과정에서 상업화, 상품화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2.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FEMINISM: 여성해방론 또는 여성주의)이란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

이미 여성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여성의 자율성에 가치를 두는 이념이다(Ruth, 1981). 또한 조혜정은 페미니즘을 "여성의 억압적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모든 종류의 사회운동에서 제시된 이념과 방법론"(1990)으로 규정한다.

위의 정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페미니즘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우선 페미니즘의 첫번째 요소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인본주의이며, 두번째 요소는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인식하는 것이고, 세번째 요소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개념을 내포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여성학을 Stanley와 Wise(1982)는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학문"이라고 규정한다. 여성학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이라는 말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겪게 되는 여성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차별적 근원이 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제도와 여기서 비롯되는 모든 여성문제를 포함한다.

"여성을 위한"이라는 말은 여성학의 목표를 함축하는 것으로 성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 의한"이라는 말은 상당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지만,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특유의 경험공유라는 관점보다는 여성의 현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조명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학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한가지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여성학은, 기존의 사회과학의 지식체계를 비판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전체의 모순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실천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과학이라는 것이다.

사회과학은 현상유지나 체제유지의 성향을 지닌 보수적 측면이 있는 동시에 현 체제를 비판하며 사회질서를 새로이 구성하려는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측면도 지니게 되는데 후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사회과학'을 들 수 있다. '비판적 사회과학'의 목적은 피억압층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성학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바로 여성학도 피억압층인 여성집단이 남성중심적인 제도와 사회질서를 폭로하여 성차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중적인 성별분업의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벗어난 허위의식을 일깨우고자 노력한다. 여성학이 사회구조의 성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적 사회과학'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학의 성격은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페미니즘의 본질과 동격에 놓인 것으로서, 우리가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수용,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3. '페미니즘의 상업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페미니즘 상업화 시대'의 면면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희망과 동시에 그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업화를 대중화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화의 방향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 안에서 표출된 여러가지 우려들에 대해 얼마만큼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 그리고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대중화의 성격은 결정지워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페미니즘 인식의 존재 현상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양귀자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꼽을 수 있다. "당당하게 벌지 않은 돈에 기생해 사는 한 여자가 혼자서 잘난척 하다가 제 품에 주저앉은 돈키호테식 이야기"(또하나의 문화, 1992, P213)를 상업적 기술로써 페미니즘문학인 척 포장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여성해방사상의 존재상황은 '페미니즘 그 자체보다도 페미니즘처럼 이해될 수 있는 기술'이 상업적으로 더 유효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페미니즘이 단순히 상업주의에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히 재료를 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현실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순구조와 더불어 제대로 그려내고 동시에 그 대안책을 보여줄 때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페미니즘 연극이라고 거리낌 없이 선언한 이영한의 '자기만의 방'은 장기공연을 지속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일견 '연극적 요소를 지니지 못한 연극'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받고 있지만 여성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직사포처럼 퍼부어지는 이 '연극'같은 연극'을 2만여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관람한 것이다. 기존 연극이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배우들의 옷벗기기 경쟁을 조장한 경우에 비해, 철학과 지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하는 연극계에 '자기만의 방'은 진솔한 볼거리를 준 셈이다.

최근 방송가의 화제가 되었던 '아들과 딸'은 우리 생활 깊숙히 은폐되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워진 남아선호사상을 남녀간의 대결구도가 아닌 인간자체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이 드라마는 가부장제에 의한 남녀차별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큰 부담이 되며 따라서 남녀모두의 공동체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존재, 가족, 결혼 등 소위 사적영역의 문제를 조용히 사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박하고 진솔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뜻한 소재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영화계에서도 페미니즘은 관객을 유인하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사례가 바로 이현승감독의 영화 '그대안의 블루'. 이 영화도 여성들에게 어름잡은 수퍼우먼의 환상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선택해 나갈 것을 '강요한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가정이나 애정편력이 아닌 일에서 찾고 있는 보기 드

문 영화로서 진지한 주제의식과 신세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작품이다.

이상과 같이 페미니즘은 상업주의와 신세대의 상큼한 정서에 부합되어 팽창해가고 있다. 70년대 말 대학 위주의 소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확산되었던 페미니즘은 불과 20년도 못되어 문학, 연극,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예술과 생활문화 전반에 새바람을 형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의식과 사회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여러 여성 단체들에서도 여성 특유의 삶과 체험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가부장제가 그려왔듯이 페미니즘도 우리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어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4. 페미니즘, 어디까지 갈 것인가?

페미니즘 문화운동의 전망

페미니즘의 상업화시대. 이것은 우리에게 페미니즘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여러가지 논의들의 주제와 슬한 이야기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페미니즘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탐구해가는 과정으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억압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변화와 실천의 사회과학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또한 다원성의 논리가 판을 치는 혼돈의 시대에 페미니즘이 여성의 주체성 확보와 동시에 더 나아가 사회를 새롭게 살려내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파괴, 환경오염, 살상을 극복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문화운동은 페미니즘의 이념과 일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페미니즘 문화운동은 새로운 문명창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 진보적 수탉의 비명 소리

김영철 / 회사원

며칠전 일이다. 이날 저녁은 아내가 민주를 찾고 돌보기로 한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10시반. 방문 여는 소리에 아이가 일어났다.

"아빠!"

"민주야!"

보통 한번 하고.

"아빠 왜 인제 들어왔어요?"

"응 일하고 오느라고."

또다시 어찌고 저찌고.

이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말뚱말뚱해진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된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 칭얼대는 것을 생각하면 빨리 재워야 한다. 게다가 오늘밤 나나 아내나 할 일이 태산인데 아이가 빨리 잠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집은 구조가 좀 이상하게 생겨서 방 두개가 벽이 터진 상태로 맞붙어 있다. 그 사이에 여닫이 문이 있어서 한쪽이 민주방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부부의 방이다. 아내가 재우려고 하자 민주는 엄마 아빠 방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민주가 우리 방으로 건너오고 아내는 그대로 민주방에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자기 방에서 잠들게 하는 게 여러모로 보아 좋을 듯 싶었다.

"민주야, 저 쪽 방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

"응."

민주를 데리고 건너와 눕히고는 나도 같이 누웠다.

"민주야 잘자거라."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탁타타타타타타탁."

"?"

문 저쪽에서 컴퓨터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은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내는 어느 사이엔가 자기 일

을 하고 있었고 아이는 내가 재우고 있었다. 무언가 속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누구든 빨리 민주를 재워야 한다. 조바심이 났다. 아이가 빨리 잠들어야 뭔가 일을 할 텐데. 다행히 민주는 말뚱부리지 않고 금방 잠들었다. 아내에게 뭔가 따지려다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9시 출근시간에 맞추려면 아이를 6시나 6시 반쯤에 깨워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아이가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한다. 민주를 맡기는 탁아소는 저녁 7시반까지 하는데 6시반정도에 퇴근해서 아이를 찾으면 8시반 가까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다. 집에 돌아와 바로 저녁 먹고 씻고 자도 10시. 얼마 아빠와 잠시 놀다보면 11시가 후딱 넘어간다.

이렇게 늦게 잠이 드니 아이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밥상에 앉아서도 꼬박꼬박 준다.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아이에게 못할 짓을 시키는 것 같아 차라리 출근시간을 늦추더라도 7시 넘어서 아이를 깨우게 된다. 일어나 밥 먹고 씻고 옷입고 하면 8시반. 이때서야 집을 나서게 된다. 우리 집은 상도동 산동네. 탁아소는 봉천동 산동네.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어른 걸음으로도 내려가는 데만 10분. 차 기다리는 데 5~10분. 차타고 또 10분.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데 15분. 도합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어른도 힘든 오르막길을 아이가 걷다보면 문제가 안생길 수 없다. 아이는 늘 "아빠! 힘들어요. 안아주세요"라며 보챈다. 때로는 "아빠! 배가 아파요"라고 호소하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면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걸음을 해서 몸에 무리가 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아이는 안아달라고 울며

때를 쓰고 그러다보면 시간은 더 걸리고 아이나 어른이나 다 지치게 된다.

하루 종일 아이에게 드는 시간이 5~6시간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 둘 중에 한사람은 늦게 출근해야 하고 또 둘중에 한사람은 일찍 퇴근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녁때 누가 아이를 찾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부는 자주 부딪힌다.

"내일 아이 좀 찾을래?"

"안돼. 나 내일 약속 있어!"

"나도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 난 어쩌란 말이야?"

"이런 꼴 볼까봐 내가 아이 낳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이 책임진다 그래서 낳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한동안 아내는 이 말만 나오면 기가 꺾여 양보하곤 했다. 결혼초에는 내가 아이를 낳자고 주장하고 아내는 반대했지만 아이를 가질 무렵에는 오히려 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낳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이 점점 커지자 어느날 아내가 반격을 했다.

"그게 도대체 애 아빠가 할 말이야? 그때 그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이 미리 쳐놓은 포석이지 당신이 정말로 애 낳는 것을 반대했어? 온근히 기대했지 않아? 당신이 정말로 애 낳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직접 정관수술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냐?"

정곡을 찔렀다.

'유구무언'

아내는 계속 나갔다.

"진짜로 민주를 책임지지 않으려면 이혼해. 이혼하고 민주를 내가 책임지면 당신은 당신 일만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애 낳는 것을 반대했고 애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사람이니까 민

주를 당신한테 맡길 수는 없어.”

더이상 반격할 말을 찾을 수 없는, 나의 완전한 패배였다.

민주를 낳기 전에는 사회생활에서의 성공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였다. 그때는 이혼한 부모들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법정에서까지 다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만약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나는 민주를 포기할 자신이 없다. 아이는 또다른 가치였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거기 있었다. 아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의 성공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나의 세계는 아이와의 관계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 골목길은 저녁이면 고즈넉한 분위기다. 이런 길을 아이와 함께 걷다보면 온갖 생각이 다 난다. 특히 삼십대 중반의 셀러리맨이 아홉시반에 출근해서 여섯시반에 퇴근하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조바심이 난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중일 텐데, 나는 이러다가 나오되는 게 아닐까? 낮에 만나 댈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녁 때면 거래처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정규 업무시가 근무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우리 회사 사정을 감안하면 저녁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래서 한번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있지 않아? 둘 중 누구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이러다가는 둘 다 나오자가 되고 말지도 몰라. 그리고 민주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클 권리가 있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자.”

그러자 아내가 간단하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이 애 키우고 집안 살림 할래?” 선뜻 그러겠노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럴 수 없듯이 나도 그럴 수는 없어. 민주와 집안일 때문에 나오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 물론 집안일 안하고 애 키우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에 비교하면 여러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냐? 그리고 민주가 크는 것도 부모가 그런 한계를 기렸다면 그 속에서 씩씩하게 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냐?”

정말 씩씩하다. 그리고 그렇게 씩씩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보면 나도 덩달아 씩씩해지는 것 같다. 우리 부부가 계속 이렇게 씩씩할 수만 있다면 아마 민주도 씩씩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씩씩한 아내도 때때로 내게 하소연한다.

“여보 다 때려 치울까봐, 너무 힘들어.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나 그만두고 들어앉아서 애 키우고 집안일이나 할까?”

사회 전체적인 남녀평등은 고사하고 부부만이라도 평등하게 살기위해 씩씩한 기상 하나만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이 밋에 걸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주저 않았을까? 능력이 있건 없건 남성들은 사회 생활을 포기를 상상조차 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흔히 말해 독하지 않으면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주저앉음의 이유가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건 자기 능력에 대한 절망이건 그것은 여성의 희생이며 상대방이 되는 남

성의 이기주의의 조장이다. 아니 이기주의인지 자각조차할 수 없도록 너무나 자연스런 사회질서에서의 순응이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만 사회적 성공이 가능한 비인간적인 사회질서에서의 순응인 것이다.

여자들이 여자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욕아와 가사를 소홀히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에 힘든 만큼이나, 남자인 내가 남자에게 이 사회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욕아와 가사를 돌보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아내의 그런 하소연에 더욱 공감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어찌됐든 사회생활로부터의 진출이지만, 나에게서는 사회생활로부터의 후퇴가 아닌가 말이다. 후퇴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과 후퇴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평범한 보통 정도의 능력밖에는 안가진 사람인 것이다.

하루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며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가다가 요즘 아이를 낳은 아내를 돌보기 위해 일찍 들어가는 평사원을 향해 부장 한사람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아무개씨는 도대체 뭐라고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뭐 애는 저만 낳아 기르냐? 마누라는 뭐하는 거야? 마누라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저녁때 거래처 사람랑 술을 먹든지 하다 못해 물품 발송을 돕든지 해야 할 거 아냐?”

그가 나를 옆두에 두고 말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욕하는 생각에 그 평사원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장인 반면

같은 부장이면서도 경영난에 봉착한 회사에 별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한 내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야유회가 끝나고 나서도 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민주를 재울 때도, 산동내 골목길을 올라 갈 때도, 부장 아무개가 아니라, 욕아와 가사로 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내 머리 속에 자리잡고서는 나를 몰아붙인다. 그럴 때면 갑자기 조바심이 나고 이 조바심은 어렵게 지탱해오던 아이에 대한 사랑, 아내와의 평등, 나의 일 사이의 삼각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조바심은 맞은 편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인간적 사회구조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분노의 화살은 때로 너무나도 단단한 사회의 벽에 튕겨 나를 자포자기하게 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화살을 쏜다.